



環境變化와 自然資源의 價値

吳 輝 泳

人類가 오늘날처럼 分秒를 다투며 바쁘게 삶을 營爲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다가올 未來의 세계는 현재보다 더욱 複雜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되리라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여러가지 삶의 여건이 지금보다 한층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점에는 懷疑를 갖지 않을 수 없다.

高度의 經濟成長과 더불어 生活樣式의 變化로 예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富의 증대는 상대적으로 環境問題라는 우리시대 최대의 이슈를 등장시키고 있다. 최근의 峇爾幹에서 자행되었던 油(oil)방류로 인한 海洋生物의 絶滅이라는 災厄이라든가 쿠웨이트 유전의 화재로 인한 대기온도의 變化 그리고 우리나라 낙동강에 流出한 폐물 による 水質汚染 등의 事件들은 그동안 우리의 意識속에 잠자고 있던 環境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에 충분했다. 그뿐인가 酸性비에 의한 土壤의 汚染이라든가 오존층의 破壞 등 생태계의 變化는 人類의 生存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들을 미래를 위해 어떤 代案이 있어야 한다는 강한 메세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때마침 지난 4월22일의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충격과 反省의 기회를 갖게하는 하나의 行사가 있었다고 한다. 서울의 북한산 언저리 放鶴洞의 8백년 된 은행나무 아래서 “환경은 죽은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인 만큼 시민 각자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커다란 생명그물임을 깨우치고 生命의 原理에 따라 총체적 오염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선언과 함께 環境보호 모임인 ‘자연의 친구’들과 몇몇 사회단체 대표들이 단식을 하면서 까지 그들의 주장을 강력히 호소했다는 기사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일반시민 단체들의 環境保護運動은 인간과 자연의 共生關係를 새롭게 浮刻하면서 자연보호의 重要성을 널리 인식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할 것이다. 사실 公해라든가 오염문제 는 인간의 편익추구에 만 몰두했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러한 現상으로 되돌릴 수 없게되는 최악의 상태이전에 環境計劃學을 바탕으로 하여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조절(Control)을 해 나가는 일이 범국민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는 인간의 편익추구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자연생태계를 유지하여 쾌적한 생활 環境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간의 서로 상반된 가치 가운데 妥協을 이루는 最大공약수를 찾는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생활 주변에 자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녹지대(Green Belt)의 설치나 국립공원의 지정, 그리고 環境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조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근년에 와서 국립공원의 保護와 管理를 위해 정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전담 기구를 만들어 保護관리업무를 체계화 하고 일원화한 것등은 자연자원의 가치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보겠지만, 그와 반대로 산업사회화 과정에서의 왕성한 개발의욕은 자연자원의 유지와 보호를 앞질러 가고 있으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자연공원은 자연의 保護상태가 良好하며, 자연의 毀損과 각종 오염으로 부터 保護되는 지역으로서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식물들도 안전하게 번식되고 있는 지역을 일컫는다.

그뿐 아니라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自然景觀도 秀麗하여 일반국민에게는 휴식, 휴양, 레크레이션의 장소로 제공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지정목적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도·군립공원의 保護관리 및 운영업무를 일부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지역의 개발이익만을 추구한 나머지 지나친 지역훼손이 유발되고 保存, 保護기능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형국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計劃과 實踐이 지역적으로 이루어 진다해도 그 생각은 全國的인 次元에서 통계상황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태계의 均衡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모두를 지켜주는 유일한 장치가 아니겠는가! 인간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성급한 개발이나 행정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소멸과 파탄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筆者：本會 學術副會長・漢陽大環境科學大學院 教授・造景聯會長・國立公園委員・農工博】